한국청소년연구 제14호 1993 가을

청소년연구의 문화인류학적 접근

— 청소년의 실체와 청소년문화의 이해 —

조 용 환*

Ⅰ. 머리말
Ⅱ. 청소년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이해
Ⅲ. 청소년문화의 성격과 연구방향

Ⅰ. 머리말 : 어느 청소년의 일기

2월 11일 (화)

드디어 내일이 졸업식이다. 지난 3년 동안의 지옥같은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기쁘다. 대학은 지금과 달리 나에게 자유와 낭만과 도전을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시험에 떨어진 동철이와 민식이 때문에 기분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 둘 다 재수를 해서 1년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긴 했지만 삼총사 가운데 나만 잘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안타깝다. 그래서 오늘 저녁 학교앞 '골목집'에서 졸업전야제 겸 영원한 우정을 다짐하는 모임을 셋이 가졌다. 주머니를 털어 한 잔 마시고 기분좋게 담배까지 물고 나오는데 재수없게 '김감독'을 만났다. 아, 졸업 전날까지 이 호랑이를 만나다니. "야, 이 녀석들 봐라. 폼이 아주 그럴듯 한데. 이젠 다 끝났다 이거지. 하지만 너희들은 아직까지 엄연히 고등학생이야. 더구나 동철이 너하고 민식이는 대진이처럼 기분낼 형편 아니잖아. 오늘은 내가 곱게 봐주겠지만 술마시고 담배 피운 너희들 행동이 결코 잘 됐다는 건 아니야, 알간?" 아, 웬 공자님 말씀… 어쨌든 대학에는 '김감독'같은 선생 없겠지. 피곤하다. 다 잊고 자자.

2월 12일 (수)

졸업식을 무사히 마쳤다. 시험에 떨어진 아이들이 많이 안 나온 탓인지 분위기가 어색하고 몹시 어수선했다. 엄마와 이모가 멋진 점심 사준다는 걸 한사코 뿌리치고 성호랑 둘이서 동철이와 민식이를 찾아나섰다. 오르막길 당구장에서 녀석들을 찾아냈다. 넷이서 '쫑파티'를 했다. 두둑히 타낸 용돈으로 오랜만에 마음껏 마시다 보니 넷이 다 취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취한 동철이가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자꾸 훌쩍거리는 바람에 오늘도 기분이 엉망이 됐다. 시간이 너무 늦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술 취한 친구를 두고 혼자 올 수 없어서 동철이를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오니 11시 반이 넘었다. 살그머니 내 방으로 들어오려다가 재수없이 아버지한테 들키고 말았다. 그런데, "대진이 너도 이제 곧 대학생이 될터이니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두 건강에 해로우니 가급적이면 삼가는 것이 좋다. 알겠니?"라는 아버지의 '자상하신' 말씀. 야, 고등학교 졸업이 좋기는 좋은 모양이다. 무섭기만 하던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토록 관대하실 줄이야. 하루 사이에 내가 어른이 됐나? 모를 일이다. 어쨌든 기분은 좋다.

이 일기는 필자가 지어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첫째로, 졸업식을 전후한 하루 사이에 '문제행동'이 '있을 수 있는 행동'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행동은 고등학생에게는 '문제행동'이지만 대학생에게는 '있을 수 있는 행동'이다. 위 일기에서 대진이가 독백하고 있듯이 하루 사이에 청소년이 성인으로 돌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둘째로, 꼭 같은 행동에 대해서 금하는 이유가 청소년과 성인에게 한결같지 않다는 사실이다. 성인이 담배를 피워서 안되는 까닭으로 우리는 대개 자신과 타인의 건강에 해롭고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며 돈이 든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밖에 '아직 덜 자랐다'거나 '어른들 앞에서 건방지다'거나 '학생신분에…'라는 이유들이 덧붙여진다.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사회문화적 범주로서 '청소년'에게 부여되는 독특한 집단적 기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로, 같은 행동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해석이 재수생과 대학생 사이에 다르다는 점이다. 대진이의 경우에도 만약 대학시험에 떨어졌더라면 아버지에게서 그와 같은 점잖은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재수생은 '고4생'으로서 비록 연령과 신체적 성숙도는 같더라도 대학생과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범주가 연령변수의 단순한 적용보다는 주로 학교라는 제도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역할기대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청소년'으로 일컬을 것이며, 그들의 삶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청소년에 관한 모든 연구는 '청소년', '청소년문화', '청소년문제'의 본질에 관한 비교문화적인 검토를 앞서 요청한다. 그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본 논문은 '청소년'의 실체와 존재적 모순을 문화인류학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청소년문화'의 성격과 그 연구방향을 문화인류학의 입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II. 청소년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이해

1. '청소년'에 대한 상식적 이해의 한계

상식적으로 우리는 '어른(성인)도 아니고 아이(아동)도 아닌 사람'을 막연하게 청소년으로 일컫는다. 이러한 집단구분에서는 그 기준이 연령층인지 발달수준인지 법률적 권리-책임관계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른 한 가지 상식적인 개념규정은 제도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를 중심으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을 청소년이라 일컫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학생'이라는

등식의 관점은 중등학교 취학율이 높고 취학연령이 비교적 일정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집단 범주를 규정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 시각은 중등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존재를 간과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삶과 문화를 학교중심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오류를 낳게 된다. 비록 학교에 다니는 '학생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학교안은 물론 학교밖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소년의 삶에는 학교나 교육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측면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시각의 위험성은 특히 학교주변에 머물면서 반학교문화를 형성하는 부류의 학생들을 단순히 '비행청소년'으로 규정하거나 그들의 반학교적 행동을 싸잡아 '일탈' 혹은 '문제'로 간주할 때 현저하게 드러난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반학교문화는 친학교문화와 마찬가지로 특정 학령집단 청소년의 하위문화로서, 그 의미에 대한 평가는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개념 혹은 범주에 대한 이러한 상식적 규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인류학자들은 대체로 '사춘기*puberty*와 성인기*adulthood* 사이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을 청소년으로 규정해 왔다. 인류학자들이 전통적 연구대상인 부족사회의 경우,[1] 사춘기와 성인기는 대부분 통과의례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범주들 간의 경계가 가시적이고 명확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문화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많은 부족사회는 사춘기를 곧 성인기의 시작으로 보았기 때문에 양자를 별도의 범주로 취급하지 않았다. 즉 '사춘기=성인기'라는 등식 속에서 하나의 통합된 통과의례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춘기와 성인기 사이에 존재하는 청소년기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가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아동기나 청소년기는 기실 근대사회의 산물이며, 긴 인류역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최근에 형성된 문화적 현상이다.[2] 근대이전의 사회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인구구조 속에서 젖먹이가 생존하여 7세가 될 무렵부터 어느 정도 홀로 설 수 있게 되면 성인과 거의 대등한 '인간' 취급을 하였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별도의 연령집단을 상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산업사회를 연구하게 된 최근의 문화인류학자들은 부족사회를 연구할 때와는 다른 시각과 방법론으로 인생역정을 다루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춘기와 성인기를 구획짓는 특별한 통과의례를 거의 행하지 않는 산업사회의 경우 청소년기의 범주를 가시적으로 설정하는 데 곤란을 겪게 되었다. 물론 예든 지금이든 인간은 누구나 사춘기를 신체적으로 경험하며, 근대사회의 경우 대부분 제도적(법률적)으로 성인기의 시작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의 범주적 실체가 문제시되는 까닭은 사춘기와 성인기가 단순히 생물학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사회문화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에 있다. 요컨대, 청소년은 그 정체 *identity*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집단이다. 따라서 사회마다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는 '청소년'의 개념과 존재 자체가 문화인류학자들의 비교문화

1) 여기서 말하는 부족사회는 소규모 종족집단으로 구성되고 비교적 단순한 생산기술을 가진 수렵채집사회나 원시농경사회(horticultural societies)를 지칭한다. 이전에는 이 사회들을 '미개사회' 또는 '야만사회'라고 일컬어 왔으나, 최근 문화인류학자들은 그와 같이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의 사용을 삼가고 부족사회라는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주로 쓰고 있다.

2) P. Aries (R. Daldick, trans., 1962), *Centuries of Childhood :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New York : Vintage Books. 시바노 쇼오잔 편(조용환, 황순희 역, 1992), 교육사회학 : 해석적 접근, 서울 : 형설출판사, 제 4장 참조.

적인 연구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2. 미숙출산의 의미와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인류학자들이 보기에 인간을 다른 동물로부터 구분짓는 요인 가운데 가장 현저하고 의미있는 생물학적 요인은 두뇌의 발달과 미숙출산(未熟出産, *neoteny*)이다.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미완성된 존재로 태어난다. 인간은 태어나서 상당한 기간 동안 혼자서는 먹지도, 걷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식은 긴 기간 동안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생존을 위한' 또는 보다 의미있게 표현하자면 '인간이 되기 위한' 학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인간이 몇 살 때부터 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사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그것은 홀로서기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즉 혼자서 먹고, 걷고, 말할 수 있는 신체적 자립에 두는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경제적 능력에 두는지,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사회적 독립에 두는지, 아니면 실존적 자아를 구축하는 도덕적 완성에 두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의 조상들은 공통적으로 그 의존기를 요즘만큼 그렇게 길게 잡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인류학자들은 근대사회의 한 중요한 특징을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출현'에서 찾는다.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유아사망율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인구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근대화는 곧 산업화를 수반하면서 아동노동의 일상적 경제가치를 떨어뜨렸으며 그에 따라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분업의 확대와 기술의 향상으로 노동이 점점 전문화, 복잡화하면서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기간이 늘어나고 그 결과 학교와 같은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급속히 보급, 팽창하였다. 아울러 '종교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린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념이 바뀌어 어린이를 '사악하고 경망스런' 존재가 아닌 '순수하고 사랑스런'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성인들은 자기 자녀가 어서 자라서 '일손'을 보태기보다는 좀더 오랫동안 애정과 보살핌의 대상으로 남아있으면서 천천히 장래를 준비하기를 바라게 되었다.

농경사회의 전통에서 벗어나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역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최근 우리 도시의 가정에서는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기를 지나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의존하는 자녀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자녀의 자립을 일찍부터 강조하는 서구사회에 비해 의존심이 더 강한 한국의 청소년은 과잉보호의 울타리 속에서 자발적이고도 창의적인 도전과 개척의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미숙출산의 의미는 선대의 문화유산을 후대가 물려받는 보수적인 전승 뿐만 아니라, 생계문제에서 한걸음 벗어나 있는 '학습의 기간' 동안 새로운 문화유산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에서도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미성년집단을 학교라고 하는 제도 속에 획일적으로 가두고서 계속 미숙한 존재로 취급하여 '보호'함으로써 문화의 창조보다는 전승에 익숙한 체제를 배태하고 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단순히 미숙한 존재로만 봄으로써 성인과의 관계를 평등한 관계가 아닌 위계적인 관계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캐나다 북서부 침엽수림지대에서 수렵채집생활을 하는 헤어 *Hare* 인디언의 경우 아이들은 일찍부터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홀로서기를 스스로 체득한다.[3] 헤어 사회의 성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와 꼭 같이 자연으로부터 능력과 기회를 부여받은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의 학습과 생활과정에 가급적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와 같은 단순한 사회를 지금의 우리 사회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미성년은 물론 성년이 지난 자녀의 삶에 대해서까지 지나친 관심을 쏟는 우리 사회를 '특이한' 눈으로 들여다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지나친 보호와 간섭이 흔히 말하는 '청소년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도 바로 이 맥락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소년의 존재적 모순[4]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가진 특수한 문제 뿐만 아니라 모든 근대사회의 청소년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모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동이나 성인과 구별되는 청소년의 존재는 근대 이후에 비로소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미성년집단을 사회화하는 방식과 제도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가정이나 지역사회 또는 소규모 공장에서 성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사회화를 경험하던 청소년들은 이제 현실사회에서 분리된 제도적 사회화기관, 즉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근대사회의 그와 같은 독특한 사회화 방식은 그 속에 여러가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는 자율과 의존의 모순, 협동과 경쟁의 모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 의존과 자율의 모순

근대시민사회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념적 원리를 바탕으로 성립하였다. 개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율 *autonomy*을 중시한다. 근대적 인간은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복종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실행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자율의 이념은 근대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였으며, 그것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대 청소년의 생활조건은 애초부터 그러한 이념의 달성에 많은 장애물을 내포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먼저 진정한 의미의 자율이 경제적 자립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근대사회의 청소년은 그 기반을 갖추지 못하였다. 경제적 의존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위계관계와 법률적 위탁관계를 낳았고 그것이 장기화됨으로써 심리적 의존성까지 생기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자율'이라고 하는 문화적 목표와 '의존'이라고 하는 제도적 수단 사이의 모순이다.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성인의 청소년에 대한 기대가 상호대립적인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요구하기 때문에 근대사회의 청소년은 홀로서기와 기대기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순의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성인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된 청소년은 이제 그 보살핌의 크기만큼 자율성을 잃게 되고 고독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그들은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 주변부를 방황하는 종속적 존재, 소외된 존재로서 일종의 소수집단 *minority group*을 구성한다. 그러한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과 자율을 추구할 경우

3) 하라 히로꼬(최정순 역, 1989), 어린이의 문화인류학, 서울 : 삼동자 참조.
4) 조용환, 황순희 역(1992), 앞 책, 제 5장 참조.

청소년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져야 한다.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쾌락을 찾아 나서는 청소년은 그것마저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인이 합법화한 방식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발견함으로써 스스로는 아무 것도 결정할 수 없다는 무력감만 더욱 절실히 경험하게 된다. 성적(性的)으로는 이미 숙성한 신체의 요구를 억제하거나 '건전한' 방식으로 바꾸어 발산해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의 청소년은 미래의 보상을 위해 현재의 욕망을 절제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중세기의 수도승과 같은 존재이다. 더욱이 이 의존과 자율의 모순은 학교교육을 받는 평균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증폭되고 있다.

2) 협동과 경쟁의 모순

근대사회의 청소년이 직면하는 다른 한 가지 대표적인 모순은 협동과 경쟁의 모순이다. 의존과 자율의 모순이 주로 청소년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모순이라고 하면, 협동과 경쟁의 모순은 청소년이 학교제도 속에서 교사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모순이다. 근대시민사회는 인간의 평등을 주요이념으로 한다. 신분, 인종, 계급, 성, 신체적 차이를 비롯하여 스스로 획득하지 아니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도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고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이 인간주의적 이념은 근대화의 토대를 이룬다. 따라서 평등한 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자연히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게 되었고, 다수의 사람이 갈등 속에서 공통의 규범을 형성하여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구성원들과 협동해야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협동이 아동이나 청소년의 사회화에 중요한 목표로서 강조되었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지위배분이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근대사회의 아동과 청소년은 업적달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경쟁방식의 타당성이나 공정성 여부와 관계 없이 오늘날의 청소년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동료들과 부단한 경쟁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와 취업경쟁이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국민학교, 심지어는 취학전 단계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경쟁의 그물'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5] 학급이나 학교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체제 속에서 바로 이 두 가지 이질적인 목표, 즉 협동과 경쟁이 동시에 권장됨으로써 청소년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된다.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은 모든 근대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모순과 함께 우리 사회의 특수한 모순(예컨대, 충효의 유교적 전통)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이 모순들은 청소년이라고 하는 집단전체에게 부여된 구조적 모순이기 때문에 청소년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청소년문제'는 청소년의 존재적 모순을 해결하는 제도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문화인류학자들이 보기에 근대사회의 '청소년문제'는 청소년의 존재적 모순이 빚어낸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 흔히 '미개한 사회'로 평가되는 전통적 부족사회는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을 이와 같은 구조적 모순의 곤경에 빠뜨리지 않는다. 일

5) 김희복(1992), 학부모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찌기 미드 *Margaret Mead*는 사모아 *Samoa*섬에서의 현지연구를 통해 20세기 미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사모아 소년 소녀들은 거의 겪지 않은 채 지극히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보낸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6] 사모아의 미성년은 성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성인과 크게 격리되지 않은 공동의 세계에 함께 어울려 삶으로써 '청소년기'라고 하는 별도의 인생행로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 점에서 우리 근대시민은 부족사회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Ⅲ. 청소년문화의 성격과 연구방향

1. '청소년문화'의 개념적 혼미

'청소년'의 정체와 그 개념이 불분명한 까닭에 그들의 독특한 생활방식을 지칭하는 '청소년문화' 역시 그 개념과 실체가 불확실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대로 아동이나 성인과 구별되는 청소년집단의 존재를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동문화나 성인문화와 구별되는 청소년 고유의 문화가 존재하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모든 사회집단이나 연령집단은 그들이 놓인 독특한 처지로 인해 그들 나름의 특수한 적응방식과 가치관을 갖게 마련이므로 '청소년문화'의 존재를 일단 상정하고 그것을 연구해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다만, 사회마다 청소년의 집단적 속성이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역시 다양성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문화'라는 개념만큼 일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다양한 용도를 가진 개념도 드물 것이다.[7] 가장 기본적으로 문화는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주어진 것'을 우리 인간의 목적에 맞도록 '다듬고 길들인 것'을 통칭한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생활은 그 자체가 대부분 문화적 활동이거나 문화적 활동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를 '생활방식 *ways of living*'으로 정의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귀결이다. 그러나 문화를 그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하다 보니까 세상에 문화 아닌 것이 없게 되고, 따라서 학술적 개념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부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그들은 문화를 겉으로 드러난 '문화적 행동'이나 그 산물을 지칭하는 '문화재 *cultural artifacts*'와 구별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문화적 행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쓰고 평가하는 일련의 규칙, 원리, 기준 같은 것으로 보자고 주장하였다.[8] 이 주장은 문화를 낱낱의 구체적인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특정집합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유형이나 그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의식구조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 이상의 관점들을 종합하여 필자는 본 논문에서 문화를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환경(자연과 사회)에 적응하면서 형성하여 공유하는 생활방식과 그에 부여하는 의미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청소년문화'는 '청소년들이 그들이 처한 삶의 조건(자연적/사회적 환경) 속에서 형성하여 공유하는 독특한 생활방식과 그들의 삶에 부여하는 독특한 의미체계'라 할 수 있다.

6) M. Mead(1928), *Coming of Age in Samoa*, Washington :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7) A. Kroeber and C. Kluckhohn(1952), *Culture :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New York : Vintage Books. 조용환(1983), 문화개념의 교육학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W. Goodenough(1981), *Culture, Language, and Society*, Menlo Park, CA : Benjamin Cummings Publishing Co.

이 정의에서 우리는 문화를 생활영역의 일부인 예술활동에 국한시키거나 '세련된 혹은 고급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일상적 용례를 배제한다. "문화부", "문화공간", "문화행사", "무형문화재" 등의 용례가 전자의 경우이며, "문화인", "문화주택", "문화병", "문화생활" 등이 후자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일부 일상적 용례를 배제하는 까닭은 우리의 청소년문화에 관한 논의를 상식수준 이상에서 학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어쨌거나 문화의 개념에 대한 지금까지의 간략한 언급에서만 보더라도 '청소년'의 개념 못지 않게 '문화'의 개념이 혼미스런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무엇을 '청소년문화'로 범주화하여 연구할 것인지 역시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 보여주는 것이 학자의 사명 가운데 하나이다. 일단 '청소년문화'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앞에서 제시한 대로 '청소년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의미체계'로 두고 다음의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자. 여기서 필자는 청소년문화의 개념과 성격에 대한 혼동의 대부분은 청소년연구나 청소년문제의 해결을 자임하고 나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야기되었으며, 그 심각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 싶다.

2. 청소년문화의 성격과 연구방향

1) 연령문화, 제도문화, 계급문화의 혼재와 그 극복

'청소년'이 일정한 연령층집단을 지칭하므로 '청소년문화'는 무엇보다 먼저 일종의 연령문화(혹은 세대문화)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인간은 성장과정에 따라 특유의 지각과 경험세계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학적 질서의 변화는 사실상 연속적인 것이지만, 우리는 편의상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와 같은 불연속적인 단계로 나누어 그 변화를 논하고 연구한다. 여기서 우리는 연속적 현상을 불연속적 인식으로 전화하는 데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인의 삶의 경로 속에서 청소년문화를 별도로 상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 생활세계에 뿌리를 둔 것인지, 그것이 인식수준이나 실제수준에서 어떤 유용성을 갖는지 미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연령집단으로서 청소년의 문화는 그 앞뒤세대인 아동이나 성인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연결고리 속에서 탐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앞에서 청소년을 중등학교 학생과 동일시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듯이 '청소년문화'를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생문화'와 동일시해서는 곤란하다. 학생문화는 학교라는 제도 혹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살아가는 독특한 방식과 그들의 삶에 부여하는 의미체계를 말한다. 학생문화는 교사문화와 함께 학교문화를 형성하며, 나아가서 교육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여러 제도들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 물론, 우리 사회의 경우 대부분의 청소년이 중등학교 학생이므로 그들의 문화를 학생문화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청소년문화가 학생청소년의 학교 안팎 생활 뿐만 아니라 비학생청소년의 다양한 경험세계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청소년연구자들이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근대사회의 청소년이 부모에게 의존적이거나 종속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스스로 획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보다도 그들 부모의 지위에 영향을 받거나 그것을

물려받는 부분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 청소년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들 부모의 문화를 함께 연구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청소년문화의 계급적 성향은 부모문화의 속성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 영국 버밍햄대학(University of Birmingham)의 현대문화연구소(CCCS, The 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는 오늘날의 서구 대중문화와 그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청소년문화를 맑스주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연구소가 수행한 청소년연구의 업적은 청소년문화를 단순히 연령문화나 제도문화의 맥락에서만 이해해서는 안되고 전체사회의 정치경제학적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헤게모니 투쟁과 관련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청소년문화에 그 성격상 최소한 연령(세대), 제도, 계급이 세 가지 차원 혹은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문화에 관한 연구가 이러한 복합성을 간과할 때 그 연구는 절름발이가 될 수 밖에 없다.

2) 동조문화와 비동조문화의 대립에 대한 새로운 인식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오늘날 청소년은 그들이 처한 존재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저항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행동은 흔히 그 사회 성인들에 의해 '일탈행동'이나 '문제행동'으로 낙인찍히고 있다. 비단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사회는 일부 아동과 성인들의 비동조적 행동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을 늘 안고 있다. 문화는 초유기체성을 가진 것으로서 개인의 특수한 관심이나 개성을 다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문화는 동조와 비동조의 대립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거나 변혁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에 관한 연구의 상당수가 비동조적인 측면에 너무 초점을 맞춤으로써 청소년문화의 총체적 특성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청소년문화는 청소년이 안고 있는 존재적 모순으로 인하여 전체문화의 입장에서 볼 때 비동조적이라고 볼 만한 요소가 동조적인 요소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현상을 청소년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청소년의 '현실'로 인식하고 연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비동조문화, 저항문화, 반문화 등은 동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전체문화의 시각에서 보면 동조문화 못지 않게 긍정적인 측면과 기능을 가진다. 그 점에서 청소년문화의 연구를 '청소년문제에 관한 문화적 연구'로 제한해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3) 청소년문화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과 반성

인간 개개인은 학습을 통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를 나누어 갖게 된다. 청소년의 독특한 생활방식과 의미체계, 즉 청소년문화가 현재의 모습으로 공유되기까지는 크게 두 단계의 문화형성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첫째는 태어나서 청소년이 되기 전까지 개인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청소년문화의 단계이며, 둘째는 자신이 청소년으로 살면서 직접적으로 공유하는 청소년문화의 단계이다. 청소년문화를 연구할 때 우리는 대개 전자의 단계를 간과한 채 후자의 단계만을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까닭은 현 시점의 청소년문화를 형성하는 데 작용한 세대적, 생애사적 배경은 비가시적이어서 파악하기 힘든 반면에, 가시적인 현실태로 존재하는 청소년의 문화적 행동과 의식은 상대적으로 조사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한 개인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수행하고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그 준거는 현재 동년배집단의 청소년문화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 온 선배집단의 청소년문화까지 포함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전자보다도 후자의 영향력이 더 클지도 모른다.

홀(Edward T. Hall)은 문화의 학습이 크게 나누어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9] 첫째로 그는 형식학습*formal learning*을 들었다. 형식학습은 대안이 있을 수 없거나 이유를 굳이 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형식화된 '진리'를 금언, 규칙, 금기 등의 형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의 학습은 개인의 내면에 그러함 아님,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분명히 하는 성향을 형성한다. 가르치는 사람은 학습자가 잘못 행동할 때 직접적인 보상(칭찬)이나 벌(호통)을 가함으로써 학습된 내용을 전의식 *sub-consciousness*수준에 자리잡게 하여 일상적 인식, 판단, 행위의 감독자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학습의 대표적인 예로 도덕적 덕목의 학습을 들 수 있다. 두번째 유형은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자연스레 혹은 의도적으로 관찰하는 가운데 그것을 자신의 행동모델로 삼게 되는 학습이다. 이 방식으로 학습된 내용은 개인의 무의식*unconsciousness*수준에 침전되어 일상적이고도 습관적인 욕구와 행위를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기억 또는 활용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쉽게 도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눈이 많이 내리는 산간지방의 아이들이 스키를 배우는 경우 그 학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동시에 지속성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전문학습*technical learning*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다수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가장 계획적인 유형의 학습이다. 이 형태로 학습된 내용은 개인의 의식 *consciousness*수준에 머물면서 실용적인 활동의 자산으로 활용되지만, 지속적으로 기억 또는 활용하지 않을 경우 쉽게 도태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학습의 방식이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학습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크고 비중이 놓은 것이 무형식학습이다. 고등영장류 특히 인간학습의 기본유형은 모방이다. 모방을 통한 학습은 문화의 세대간 전승과 집단간 전파를 가능하게 한다. 한 예를 들자면, 일본 큐슈지역 외딴 섬에 서식하는 한 무리의 짧은꼬리원숭이*macaques* 가운데 고구마에 묻은 모래를 떨어내기 위해 그것을 개울물에 씻어먹는 행위가 전파된다는 사실이 인류학계에 보고된 적이 있다.[10] 이 행위은 생후 16개월된 암컷 원숭이가 처음으로 하였는데, 4년후 이 섬에 서식하는 약 50%의 원숭이가 이 행위를 학습하였고, 9년 후에는 약 71%의 원숭이가 학습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은 그 집단내에서도 청소년층 원숭이들이 가장 유연하고 유희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것을 학습하거나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성인 암컷이, 마지막으로 성인 수컷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베잇슨(Gregory Bate-son)이 지적하였듯이 성인은 어린이와 달라서 기존의 질서를 흐트러뜨릴지도 모를 '무질서한 놀이'에 쉽게 뛰어들지 못한다.[11] 그 점에서 청소년의 주요 활동 가운데 공부 못지 않게 놀이가 문화의 학습과 창조에 중요함을 알 수 있다.[12]

9) E. Hall(1959), *The Silent Language*, Greenwich, Conn : Fawcett.

10) V. Barnouw(1979), *Anthropology*, Yomewood, IL : The Dorsey Press, P. 57.

문화학습의 과정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로, 청소년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현재의 청소년이 청소년이 되기 전에 무엇을 배우고 자랐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로, 성인들이 현재의 청소년문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 일차적 책임은 그 문화의 형성과정에 모델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 있는 성인들 자신에게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현재의 청소년문화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학교나 다른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각종 전문학습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지극히 피상적인 접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4) 청소년문화의 문화기술적 연구

인간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들은 특정지역 또는 특정집단 속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그 지역이나 집단의 언어와 풍습을 익히고, 관찰자로서의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참여하는 이른바 '참여관찰*participance observation*'의 방법론적 전통을 형성하였다. 문화에 관한 그와 같은 현지연구의 과정 혹은 산물을 우리는 '문화기술(지)*ethnography*'라고 부른다.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문화도 문화기술적 접근을 활용할 때 타당성이 가장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문화기술적 연구의 구체적인 기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체득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13] 그 대신에 청소년문화를 문화기술적 접근으로 연구할 때 연구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연구논리와 청소년문화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인연구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문화기술적 연구의 기본논리 가운데 첫째로 문화상대주의를 들 수 있다.[14] 집단마다 삶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방식이 다르게 되고 삶에 부여하는 의미체계도 서로 다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집단간의 문화적 우열과 한 문화에 의한 다른 문화의 지배를 부정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실천적 입장이 바로 문화상대주의이다. 문화상대주의는 현상학*phenomenology*의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논리에 의하면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은 그 나름의 고유한 방식과 가치를 가진 것이므로 성인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반드시 청소년의 시각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눈에 비친 '현실*reality*'은 어른들의 눈에 비칠 '현실'에 비해 때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일지 몰라도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의미있는 세계이다. 둘째로 총체주의를 들 수 있다. 한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나 측면들은 밀접한 관련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낱낱으로 분리

11) G. Bateson(1978), "Play and Paradigm," M. Salter (Ed.), *Play :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West Point, NY : Leisure Press, PP. 7-16.

12) 조용환(1993), "체계적인 놀이연구를 위한 '놀이'개념의 재조명," 교육연구 제 2집,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pp. 303-313.

13) 문화기술적 연구의 구체적인 기법은 J.Spradley(1980), *Participance Observa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이희봉 역,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참조.

14) 문화기술적 연구의 세가지 기본논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용환(1991), "한국교육의 문화적 전제와 교육인류학," 교육이론과 실천, 창간호, 마산 :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해서는 결코 온전하게 이해될 수 없다. 이 관점에 의하면 청소년문화의 연구는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적환경, 테크놀로지, 정치제도, 경제구조, 사회관습, 종교적 전통 등 여러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24시와 모든 생활공간, 그들의 관심사와 관련사물, 그들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로 문화기술적 연구는 자연주의적 관점 또는 비실험적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인류학적 연구는 실험연구나 조사연구에 비해 연구대상의 방어적 자의식이 연구과정에 덜 개입된다는 장점이 있다. 인류학자들은 연구상황을 조작하지 않으며 관찰과 면접을 '있는 그대로' 최대한 일상적인 생활장면 속에서 수행한다. 청소년문화를 문화기술적 방법으로 연구할 때 연구자는 청소년들이 연구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거나 적어도 낯설게 여기지 않도록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 *raport*'를 충분히 형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문화기술적 연구에 있어서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로, 문화기술적 연구자는 최대한 '원주민이 되려고*go native!*' 노력한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을 연구할 때 성인 연구자는 극복할 수 없는 신체적 차이 때문에 그러한 원리를 제대로 실천할 수 없다. 소인국의 갈리버와 같은 성인 연구자가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참여하여 그들의 문화를 일상적 상태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어려움을 철저히 인식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연구에서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한다. 둘째로, 성인세계를 지향하는 동시에 성인의 권위에 저항하는 청소년문화의 이중성을 연구자는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연구자가 어떤 자세로 자신들을 대하는가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그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셋째로, 청소년들이 연구자를 '친구'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이 범죄와 같은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욕설이나 성적 희롱과 같은 부덕한 행동을 할 때 연구자는 '성인'과 '연구자'의 역할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지나친 간섭은 친구관계를 깨뜨릴 우려가 있고 전적인 방관은 사회규범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인류학자들은 대체로 성급한 도덕적 판단을 보류한 채 성인의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장한다.[15] 끝으로, 청소년기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부끄러움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이성의 청소년을 연구할 때 그들이 상대방 성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나 행동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며, 부모와 다른 성인의 우려를 사지 않도록 연구대상과의 관계를 신중히 해야 한다.

15) G. Fine and K. Sandstrom(1988), *Knowing Children : Participant Observation with Minors*, Beverly Hills, CA : SAGE, Ch. 4 참조.

참 고 문 헌

김희복(1992), 학부모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용환(1983), 문화개념의 교육학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용환(1991), "한국교육의 문화적 전제와 교육인류학", 교육이론과 실천, 창간호, 마산 :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조용환(1993), "체계적인 놀이연구를 위한 '놀이' 개념의 재조명," 교육연구, 제 2집,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시바노 쇼오잔 편(조용환, 황순희 역, 1992), 교육사회학 : 해석적 접근, 서울 : 형설출판사.

하라 히로꼬(최정순 역, 1989), 어린이의 문화인류학, 서울 : 삼동자.

Aries, P.(R. Baldick, Trans., 1962), *Centuries of Childhood :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New York : Vintage Books.

Barnouw, V.(1979), *Anthropology*, Homewood, IL : The Dorsey Press.

Bateson, G.(1978), "Play and Paradigm," M. Salter(Ed.), *Play: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West Point, NY: Leisure Press.

Fine, G. and K. Sandstrom(1988), *Knowing Children : Participance Observation with Minors*, Beverly HIlls, CA : SAGE.

Goodenough, W.(1981), *Culture, Language, and Society*, Menlo Park, CA : Benjamin Cummings Publishing Co.

Hall E.(1959), *The Silent Language*, Greenwich, Conn : Fawcett.

Kroeber, A. and Kluckhohn(1952), Cult-ure :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 New York : Vintage Books.

Mead, M.(1928), *Coming of Age in Samoa*, Washington :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Spradley, J.(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이희봉 역(1990),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